

종일토록 무심의 도 안에서 노닐고
별 나비 쥐와 함께 기쁘게 친구하네

생각생각에 이뿃고를 놓지 않다
삼십년 세월을 잊었네

산색은 유순해지고 들녘은 가을걷이를 기다리고 있다. 지리산 자락 칠선계곡에 자리 잡은 서암정사의 가을은 아름다웠다. 서암정사 종각에 서면 걸걸이 둘러쳐진 산자락 사이로 지리산의 최상봉인 천왕봉이 보인다. 천혜의 절경에 자리하고 있는 서암정사는 한국의 굴법당에 대한 기록을 새로 쓰게 했다.

서암정사에 들어서서 자연암반에 새겨진 사천왕상과 눈맞춤을 하는 순간 상서로운 기운을 느끼게 된다. 사천왕상을 지나 돌계단을 올라가면 아치형으로 된 대방광문(大方廣門)을 지나게 된다. 대방광문은 화엄세계 즉 비로자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말한다. 대방광문을 지나면 사바세계를 굽어보고 있는 비로자나불을 만나게 된다. 커다란 한 개의 바위에는 비로자나불과 협시보살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새겨져 있으며 2단 구조를 이루고 있다. 나반존자를 새긴 바위는 독성각이 되고, 호랑이를 타고 있는 산신을 새긴 바위는 산신각이 된다. 도량을 둘러보면 태초에 이 땅은 만년성지로 점지되어 있다가 기연을 만나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천연동굴인 굴법당에 들어서면 불보살의 세계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법당문을 열고 들어서면 순간이동을 하여 천상에 발을 딛고 있다는 환상에 빠져든다. 불보살 사이사이의 여백을 가득 채우고 있는 구름과 물결을 따라 어디론가 동실동실 떠가는 느낌이 든다. 아미타불전에 나뭇잎 삼배를 올리고 굴법당 내부를 찬찬히 둘러본다. 오래전부터 넓고 싶었던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48대원을 세웠던 법장비구도 법당을 지키고 있다. 자연동굴에 불과했던 공간이 원응스님의 수행과 높은 안목에 의해 화엄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졌다.

낮은 검은색 털신을 신은 원응스님이 주장자를 짊고 도량을 거닐고 있었다. 눈피리가 부처님 같이 인자한 스님의 얼굴을 마주하자 세속에서 힘겨웠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싶어졌다. 스님의 근황을 여쭙었더니 “노인네 하는 일이 별 것 있나.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지”라고 하신다.

“예전보다 근력이 떨어져서 활동량이 아무래도 줄어들었지. 생로병사를 피할 장사가 어디 있겠노?”

굴법당 앞의 배롱나무는 끝물이라 색 바랜 꽃잎 몇장을 달고 있었다. 배롱나무는 사람으로 치자면 한쪽 팔이 잘려나간 것처럼 생김새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이 배롱나무 나이가 200살도 넘어요. 어느 농가의 마구간 앞에서 현대판다가 나무 장사에게 팔렸어. 내 눈에 들어서 굴법당 앞에 심어놓았지.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자기 자리가 있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빨리 찾아가는 것도 공부야. 너무 분에 넘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

원응스님은 1960년에 선공부를 위해 조용한 지리산 벼송사에 들어왔다. 한국전쟁으로 벼송사는 폐허 직전이었고 법당의 부처님은 탑금이 되어 검은색



“공력을 들이면
들인 만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을 띠고 있었다. 폐허가 된 도량을 일으켜 세우면서 벼송사가 조선인민유격대의 아전병원으로 이용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욕심과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많은 원혼들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이데올로기에는 민주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지만, 부처님 법 안에서는 그런 분별은 없어지고 똑같이 불성을 지닌 사람들이지. 부처님 법 안에서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기에 아무 이유 없이 원통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달래주고 싶었지.”

스님은 지금의 서암정사인 자연석굴을 발견하고 나서 상서로운 꿈을 꾸었다. 스님은 이곳을 만년도량으로 일구어내야겠다는 발원을 했다. 일꾼들과 함께 손수 돌을 저 나르는 일을 했고, 도량의 큰 나무부터 풀 한포기까지 스님이 직접 심고 가꾸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연장을 잡았다. 오름을 저녁녘이 되어서야 연장을 손에서 놓았다.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일한 그때의 심정을 시로 읊었다.

종일토록 무심의 도 안에서 노닐고
별 나비 쥐와 함께 기쁘게 친구하네.
終日無心道業裏
蜂蝶野鼠歡喜友

자연석굴에 굴법당을 조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 까막잡진 숲 속에 스님이 생각하는 화엄의 세계를 조성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이었다. 스님은 굴법당 조성하는 이 일을 금성에 다 해마치지 못하면 다음 생애라도 할 것이라 마음먹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다. 스님은 세월을 헤아리지 않고 눈앞에 하나하나씩 펼쳐지는 화엄의 세계만을 보았다.

“우리가 한 생만 살고 그만 사는 것이 아닌데 그리 서두를 일이 뭐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공력을 들이면 들인 만큼 다 나오게 되어 있어.”

스님은 결코 말씀을 길게 하지 않는다. 평생을 말보다는 몸소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았

기 때문이라. 혹 사람들 눈에는 원응스님이 분분사를 잊어버리고 굴법당 짓는 일에만 매진한 것으로 비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스님에게는 노동이 곧 수행이요 수행이 곧 노동이요.

생각생각에 이뿃고를 놓지 않다
삼십년 세월을 잊었네
念念不離是甚麼
不知歲月三十年

원응스님은 1985년 서암정사를 건립하면서 <대방광불화엄경> 80권분을 금니로 사경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금니로 사경하기 전에 먹으로 <금강경>을 120번, <대방광불화엄경> 80권분을 사경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스님만의 독특한 서체가 탄생했다. 처음 10년은 먹으로 58만 7261자에 달하는 <화엄경> 전문을 사경하였는데, 이는 금니사경을 위한 준비과정이기도 하다. 오탈자의 방지를 위해 붓은 사 판본과 직지사 판본을 일본신수대장경과 대만중국대장경과 대조하고 점

서암정사 회주
원응스님

검하여, 글자 한 자도 빠지거나 틀리지 않도록 바로잡았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다시 5년의 세월 동안 매일 300자씩 사경하였다. 손수 쪽물을 들여 만든 감지(繼紙)위에 금가루를 아교에 섞어 붓으로 써내려간 감지금니(繼紙金泥) <대방광불화엄경> 전문이 사경되어 1999년에 완성되었다. 15년의 세월동안 힘든 사경으로 인해 여러 차례 팔이 빠지고, 시력을 잃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어려운 고비를 당할 때마다 부처님의 육년 고행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참선과 기도로서 극복했다. 낮에는 가람 짓는 일을 하고 밤에는 불 밝혀 사경 수행을 하는 동안 수

교보문고·인터파크·에스24·알라딘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Buddha's Brain
붓다브레인
the practical neuroscience of happiness, love & wisdom
행복·사랑·지혜를 깨발하는 뇌과학

2009년 11월 발간 이후 36주 연속 아마존닷컴(논픽션 분야) 베스트셀러!

뇌를 바꾸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리뷰: 리처드 헨드릭스 글 | 장현갑·장주영 옮김
360쪽 | 신국판 | 18,000원

스님, 「붓다브레인」을 두 번 구매한 까닭은?

행복한 '의'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교과서

현대 뇌과학 연구의 집대성!
더 나아가 우리 뇌를 질적으로 바꾸는 마음훈련·뇌훈련 지침서

2009년 11월 발간 이후 36주 연속 아마존닷컴(논픽션 분야) 베스트셀러!

- 【교보문고 회원 | eunsik**님】 이 책을 읽고 나니 내가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동물적인 반응 인지를 알게 되었다.
- 【교보문고 회원 | anys**님】 빨리 읽고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조금은 천천히 새겨가며 읽으면 더 좋은 책이다. 책에 소개된 명상법 등도 할 수 있는 한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천천히 꾸준히 해보기를 권장한다. 무조건 이론적인 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도 좋은 책이다.
- 【교보문고 회원 | philip**님】 가을이 오고 있다. 길 떠나는 이들에게 챙겨가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다.
- 【네이버 블로그 | shoosing**님】 붓다 브레인은 나의 일련의 고민과 그 바탕인 내 가치관을 뒤집고 있는 책이었다. 어쩌다 읽은 책이 가치관을 바꾸고 해결책까지 푼 단서준 격이었다.
- 【네이버 | ahhasst**님】 뇌과학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과 진리가 과학을 통해 조금씩 밝혀지는 과정을 이 책을 통해 소소히 밝히고 있다.
- 【네이버 | kchmen4**님】 난 원래 누군가가 책을 추천해주면 꼭 읽는다. 추천을 많이 받지는 않지만 추천을 받은 책이라면 빌려서라도 읽는다. 참 오랜만에 누군가가 권해준 책... 붓다 브레인이었다. ...행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Buddhism as Psychotherapy

불교 심리치료와

심리치료로서의 불교명상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 체계와 실천적 통합

물질적 풍요에 어울리는 정신적 풍요를 갖추지 못하고 스스로를 소외한 채 우울과 불안, 고독에 빠진 현대인을 위한

안도 오사무 著 / 지음
인경 스님 이필원 옮김
신국판 / 반양정 / 288면
값 16,000원



마음을 크게 쓰는 것이 부처님 법

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원응 스님은 화엄경 사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묘한 일이 있었지만 '마음을 깨치는 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사경수행이 있었고,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사경원'이라는 공공기관을 두어 국가적으로 사경전문인을 배출할 정도였다. 하지만 조선의 송유역불을 거치면서 사경은 거의 맥을 잃고 말았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사경본은 국보 제196호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의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원응 스님의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80권 전문 사경본은 세계 유일의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60만 자에 이르는 방대한 경전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써내려갔다고 하니 얼마나 집중하여 정성을 들여서 사경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한 자라도 틀리면 그 페이지는 다시 써야 하는데, 글자를 틀리게 썼다고 해서 힘부러 찢어버릴 수 없는 것이 경전이기에 한 자를 쓸 때마다 온 정성을 다 쏟았다.

스님은 "사경할 때의 그 마음이 바로 화두 드는 그 경계와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았다. 원응 스님은 사경통선(寫經通禪)이라 하여 "사경수행은 곧 선수행과 상통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사경은 선과 함께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을 나아가는 최상의 수행법"이라 했다. 스님은 선방 좌복 위에서의 선만이 선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스님은 노동을 통한 선, 사경을 통한 선으

로, 수행이 안 된 태(態)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임을 보여준 것이다.

"사경을 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기도와 함께 다른 이들의 행복과 우리 사회가 밝아지기를 발원하는 것이 더 귀하다. 지식을 위한 기도도 좋고 다 좋은 일이지만, 마음을 크게 쓰는 것이 부처님 법이지. 글 한 자에 절 한 번, 혹은 글 한 줄에 절 한 번을 할 만큼 경건한 마음자세로 사경을 하다보면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이지."

경전을 몇 번 사경했다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경하는 동안 내 안의 탐욕과 번뇌를 단속하고 녹여나가는 마음자세가 중요한 것이라 했다. 원응 스님은 사물의 외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보시기에 중생들의 숫자늘음도 마뜩찮은 것이다. 사경을 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오자나 탈자가 생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사경수행은 고도의 정신집중을 요하는 수행법이다. 사경삼매의 그 맛도 화두삼매와 다르지 않단다.

원응 스님의 상좌이자 서암정사의 주지인 법인 스님은 '사경통선'을 널리 알리고 싶어 서암정사에 '사경법보전'을 건립했다. 건평 80평으로 지어진 사경전문 전시관이자 참배관으로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사경본을 중심으로 하여 금니, 은니, 경면주사 사경본과 탑 다라니 등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경수행을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도 마련해 두

었다. "불교는 스스로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 깊은 맛을 알 수 없어요. 사찰에서 직접 사경삼매를 느끼고 수행에 눈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 기록으로만 흘러가는 신행생활을 바로잡아주고 싶은 원응 스님의 뜻을 읽을 수 있었다.

'길지 않은 한 생 동안에 굴법당인 서암정사와 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사경본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고 했더니, "출가인은 오로지 공부한 것만을 가져가지 다른 것은 없다"는 말씀을 낙관처럼 씩는다.

글 · 사친 =문운정(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원응 스님은 ...
부산 선암사에서 석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그 후 전국의 제방에서 참선 공부에 매진. 1961년 지리산 벽송사에 들어가 도량을 중창하고 서암정사 창건. 1985년부터 15년에 걸쳐 <대방광불화엄경> 사경, 화엄경 금니사경 전시회를 한국과 대만에서 여러 차례 열었다. 서암정사에 주석하며 '사경통선(寫經通禪)'을 널리 펴고 있다.



한국불교 승려열전

만해용운(萬海龍雲1879-1944)②

만해 스님에게 조선불교는 파괴하고 유신해야 할 대상이었다. 일본·중국을 비롯한 여러 구미열강의 소식을 알고 조선과 조선의 불교를 돌아보았을 때, 현실은 아득한 절망이었을 것이다. 대자유인의 삶을 추구해왔던 그의 열정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조선의 현실과 조선불교의 현실은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이었다. <조선불교유신론>은 그런 열정과, 그 열정으로부터 오는 절망과, 그 절망에 굴하지 않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시 한번 그에게 가혹함을 선사했다. 나라의 제국의 추악한 욕망 앞에 압제됐고, 그나마 가느다란 명맥을 잇던 조선불교는 종교영토를 확장하려는 일본불교의 야심 앞에 유린 당했다. 그 굴레를 벗지 않고서는 대자유인은 고사하고 숨을 쉬는 것도 벅찼다.

일본 조동종과 아합하려던 이회광의 원종에 대응해 임제종 운동은 시작했을 때, 이미 그의 행로는 일정 부분 결정됐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임제종

깨닫지 못하는 주지를 어찌 싫다운 주지라 하리요. 첫째로 나는 불교의 자질을 주장하며, 사회적 활동(衛活動)을 요구하며, 경전의 민중화를 요구하며, 경전의 민중화를 희망하느니, 이 어찌 단순히 불교계만을 위하여 희망하는 바이리요, 조선 전 민중을 위하여 희망하는 바로다."

만해 스님에게 불교는 늘 시작이었다. 그것은 불교만의 시작이 아니었고, 조선의 민중 조선의 중생을 향한 시작이라는 것이 본연의 입장이었다. 때로는 시를 쓰고, 때로는 소설을 쓰고, 때로는 개혁론을 집필하고, 때로는 불교경전을 한글로 간행하는 사업을 하고, 때로는 제국의 압제에 저항하는 단체를 만들고, 때로는 조선독립의 이유를 강론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하다, 너무나도.

"불교는 일체 중생의 불교요 산간에는 사찰의 불교가 아니며, 계행(戒行)을 지키고 선정(禪定)을 닦는 승려의 불교가 아니다."

만해 스님에게 불교는 신중사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불교는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승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불교가 산간으로 밀려나 세속



만해 스님.

조선의 민중 너무도 사랑했던 대심보살

운동은 두 가지 방향을 주축으로 전개됐다. 하나는 '실로 원시적'이었던 조선의 사상계를 내부로부터 일깨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선의 불교를 팔아먹으려는 원종의 매종(賣宗) 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었다.

만해 스님 스스로도 훗날 <불교>제86호, 1931이 임제종 운동이 조선불교청년동맹의 기원이었음을 회고했다. 이로써 만해의 삶의 행로가 불교 개혁과 왕일이란 두 갈래로 두텁하게 갈래 지어볼 수 있을 것이지만, 만해 스님에게 이 두 길은 사실 하나의 길일뿐이었다. 민족사의 분수령이라 평할 만한 3·1만세운동이 그러하다.

만해 스님은 적극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고 일을 주도하다시피 했다. 단순히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33인 가운데 누구보다도 제국에 의한 굴절을 몸소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만해 스님의 눈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중생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기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1922년 조선불교유신회의 창립을 알리는 글의 말미에서 만해 스님은 주지(住持)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지는 일면에 있어서는 불교의 본질을 행할 신성한 책무가 있고, 일면에는 그에 의해 생활하는 신자의 신앙심에 보답할 절대한 의무가 있으니, 이를

과 떨어져 격리돼 있었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반성과, 이제 그 역사적 현실에서 벗어나 사찰만의 불교, 승려만의 불교화는 '안일한'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적 실천의 명제를 강조한 것이다.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시작해 만해가 평생을 놓지 않았던 화두 '불교의 개혁'은 조선의 전 민중을 향해 나아가서, 일체 중생의 불교가 되어 일체 중생을 해방하고자 하는 염원의 출발점이었을 뿐이다. 해서 그의 발은 늘 불교의 개혁이라는 현실에 담겨져 있었고 그의 눈은 늘 불교를 통해 해방된 중생을 바라보고 놓지를 않았던 것이다.

"만해(龍海)는 중이냐? 중이 아니다. 만해는 시인이냐? 시인도 아니다. 만해는 한국 사람이다. 뚜렷한 배말민족이다. 독립지사다. 항일투사다. 강철 같은 의지로, 불평이 같은 정열로, 대쪽 같은 절조로, 고고한 자세로, 서릿발 같은 기상으로 최후 일각까지 몸뚱이로 버텼다.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굳세게 결투했다."

조종현 시인의 만해 찬탄이다.

만해는 중도, 시인도, 독립지사도 항일투사도 아니다. 만해는 그저 조선의 민중, 이 땅의 일체 중생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대심보살(大心菩薩)이었을 뿐이다.

■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태성전기난로
Tae Sung Power Heater

겨울추위 강력난방 전기난로 68,000원

강력한 화력 / 저렴한 유지비 / 잔고장이 없는 / 강력난방

초강력 난방으로 전기료 절약!!

1일 8시간 사용시
3KW 기준 1,668원
(누진세 미적용)

특별할인가 68,000원
▲TS-7300 적용면적 : 10.56㎡ (3.5방) / 1.2㎡
▲사이즈/325x540mm • 무게 / 3.2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x1.2㎡x3=667원
●TS 73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A

특별할인가 88,000원
▲TS-7000/WJ3000 적용면적: 24㎡ (7~10방) / 3.0㎡
▲사이즈/355x660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x3.0㎡x3=1,668원
●TS 70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1

특별할인가 78,000원
▲TS-7200/WJ2000 적용면적 : 16.5㎡ (5방) / 2.0㎡
▲사이즈/325x540mm • 무게 / 3.3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x2.0㎡x3=1,122원
●TS 72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
※가정용 난방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무실, 상가 등 일반 난방, 산업용 난방은 제외)

360°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强者!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

실내전체가 훈훈한 태성전기난로 유지비까지 저렴하고 정말 좋네요!

고구마, 떡, 익히는 고열량 방송

가습기 기능
주전자에 물을 담아 올려 놓으면 건조한 겨울 실내의 습도를 유지하며 가습기 역할을 합니다.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태성전기난로

일반히터는 히터 주변만 따뜻하지만 태성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스토브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전도 안전스위치 부착"

태성전기난로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방에는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중국산과 비교불허!

-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 상판위에 물을 데워 실내가습효과
-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 무소음 / 무취 / 무연

1년 무상 A/S보장!
저렴한 유지비로 초강력 난방

주사용처 : 사무실 등 협소한 장소, 아동이 잤던 곳, 접객업소(식당/주점/펜션)

구입문의 : 080-800-0022

입금계좌 : 농협 351-0201-2415-73 김지영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